

# '전주시립양묘장' 동절기 대비 집중점검 나선다

### 전주시,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재해 신속 대처 통해 시설 피해 최소화 도모 생기 있는 도심 경관 위해 주요 도로·광장·관광지에 겨울꽃 5만본 식재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립양묘장 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 봄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선보일 오스테오스펠럼 등 다채로운 봄꽃 10종, 20만 본을 차질 없이 생산하기 위해 전주시립양묘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양묘장 내 비닐하우스의 보온커튼 및 찢어진 비닐을 점검해 내부 적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동파를 방지하는 등 한파 피해에 대비하고, 눈이 녹은 이후에는 물이 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꽃묘의 동절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겨울철 도심 경관을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 태조로와 서화로 등 13개 노선에 배치된 가로 화분

경기전과 덕진광장 등 4개소의 정원화단에 겨울꽃 5만 본을 식재했다. 식재된 겨울꽃 수종은 추위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꽃양배추(투시르 로즈의 6종)와 겨울 정원에 어울리는 백묘국과 보리 등이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따뜻한 봄꽃을 생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꽃 식재를 통해 도심에 푸르름을 선사해 다가올 추운 겨울이 조금이나마 훈훈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첫발'

### 이용객들에게 다회용기 제공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전주시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고려병원장례식장과 시티장례문화원, 온고을장례식장, 효자장례타운 등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장례식장은 이용객에게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해 홍보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무료로 다회용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을 통해 초음파 세척과 고온고압 세척을 거쳐 되며, 세척 후 소

독·살균 및 오염도 테스트를 거쳐 위생적으로 제공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지역 17개 장례식장 대표와 전주지역 자활센터장 등과 간담회(5회) 및 설문조사(2회)를 실시하는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4개 장례식장과 지난 10월 6일 '1회용

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 장례식장에는 다회용기 제작·세척 비용과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참여 장례식장들은 이용객 홍보 및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 감량 실천을 통해 월 평균 장례건수의 30% 이상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이 2023 전라북도 인물대상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 전북도 인물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 1·2, 금안 1·2동)이 지난날 2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 인물대상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와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등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한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남 의원은 8~10대 전주시의회와 지

난해 7월 개원한 제12대 의회까지 4선의 경력을 지닌 중진 의원으로 각종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관우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민·관 합동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

전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상습적인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도심 환경 저해 행위를 차단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일 권역별 상습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및 불법투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지난날 29일 진행된 11월 합동 단속은 전주시 청소지원과 직원과 완산시민경찰연합회 회원,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와 불법투기 지역 순찰 및 계도 활동 강화를 위한 '상습 불법투기 구간 순찰 및 계도 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꾸준히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지역 권역별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상가 집중 구역을 찾아 주민들에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홍보했다. 또, 구역 분무 미사용 행위와 음

식물 및 재활용품 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시했다. 특히, 이날 민·관 합동단속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미진한 단독주택지역과 상가 집중 구역에서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박용업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장은 이날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전주시 불법투기 실태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불법투기 현장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순 전주시 청소지원과장은 "불법투기 문제 해결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완산 시민경찰연합회·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가 등 시민들이 앞장서서 함께한다면 도심 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심 내 불법투기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해 불법투기 없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은행이 방한키트 김장김치 전달식을 갖고 있다.

## "따뜻한 겨울나기 도움 되길"

### 전북은행, 전주시에 어려운 이웃 위한 동절기 물품기탁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지난날 30일 전주시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심경식 전북은행 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방향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이 이날 기탁한 김장김치 83박스과 담요·수면바지·발열내의·위머·장갑 등 5종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키트 150박스는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경식 전북은행 부행장은 "우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앞장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은행 측에 감사드린다"면서 "연말연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해마다 전주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 "사형제도 폐지하라" 세계 사형 반대 날 행사 전동성당서 개최

전주 전동성당에서 '세계 사형 반대 날' (11월 30일) 행사가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06년 명동대성당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지난날 29일 전주전동성당에서 '사형 반대' 조명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동성당 벽면에 '사형제도 완전폐지',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 '강성형벌 정책중단' 등 메시지가 쓰여진 조명을 비쳤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21년간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 반대 행사를 전주성당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최우선으로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

국내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사형 반대 날' 행사는 2006년 명동대성당에서 처음 시작돼 매년 개최된다. 한편, 한국은 김영삼 정권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집행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현재 한국의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은 2019년 2월 사건이 접수돼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9번째 사형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10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